

추석 가정예배순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요4:24)

묵도	요한1서 4:11	사회자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같이
찬송	589장(통 308장) 넓은 들에 익은 곡식	다같이

1. 넓은 들에 익은 곡식 황금 물결 뒤흔치며
어디든지 태양 빛에 향기 진동하도다

후렴:무르익은 저 곡식은 낫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아멘

2. 추수할 것 많은 때에 일꾼 매우 적으니
열심 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 주소서

3. 먼동 틀 때 일어나서 일찍 들에 나아가
황혼 때가 되기까지 추수하게 하소서

4. 거둬 들인 모든 알곡 천국 창고 들인 후
주가 베풀 잔치 자리 우리 참여 하겠네

대표기도	가족 중에서	
성경봉독	골로새서 3장 15-17절	사회자

15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
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
나님을 찬양하고

17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설교	화목과 감사
기도	
찬송	301장(통 460) 지금까지 지내온 것

- 1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피 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 2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 3 주님 다시 뵈을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벼를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주기도문

<설교문> “화목과 감사”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은 민족의 명절 추석입니다.
우리가 한자리에 모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은혜이고 기쁨입니다.
추석은 단순히 음식을 나누고 성묘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삶을 지켜주신 은혜를 돌아보고, 감사와 화목을 다시 확인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1. 화목은 하나님께서 주신 명절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평강이란 단순한 고요함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할 때 주어지는 온전한 평화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힘으로는 완전한 화목을 이룰 수 없습니다.
형제 사이에도,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때로는 말다툼과 오해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 화목의 은혜가 우리 마음을 지배할 때, 우리는 가족 안에서도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추석에, 혹시 서운함이나 갈등이 있었다면 주님의 평강 안에서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다. “미안하다, 고맙다” 한 마디가 우리 가정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 것입니다.

2. 감사는 화목을 지켜내는 힘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감사는 상황이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때 저절로 흘러나옵니다.

우리가 올 한 해를 돌아보면, 부족한 것 같아도 여전히 숨 쉬고, 가족과 함께하며,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불평 대신 사랑을 나눕니다. 그리고 감사는 우리 가정을 하나로 묶는 끈이 됩니다.

명절 때 가장 많이 오가는 말이 ‘수고했어’, ‘고마워’라는 말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작은 감사의 표현이 우리 가정의 화목을 지켜줍니다.

3. 추석을 화목과 감사의 제단으로 세우자

구약에서 절기는 단순한 풍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쌓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추석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우리 가정을 다시금 감사와 화목의 제단으로 세우고자 합니다.

부모님께는 “존경합니다”라고, 자녀들에게는 “너로 인해 감사하다”라고, 형제자매와 친척들에게는 “우리 함께해서 행복하다”라는 고백을 나누며,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화목의 제단으로 삼읍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추석을 맞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의 평강과 감사의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우리를 화목케 하셨으니, 우리도 그 은혜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감사하는 자로 살아갑시다.

오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기쁨의 제단이 되고, 세상 속에 화목과 감사의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추석 가정예배순서지

